이태준 완결된 세계로의 지향

◇학술논문 … 이태준의 단편소설에 대하여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응하여 살아가는 방법은 실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순과 부조리가 삶의 근원마저 흔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또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태준은 1930년대에 주로 활동한 작가로서, 특히 '한국 단편소설사상에 있어서 김동인과 현진건의 뒤를 이어 누구보다도 뚜렷한 공적을 남긴 작가'라는 평가처럼 단편소설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의 단편소설들은 '역사의식의 존재/부재'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으며, 해방 이후 행적(월북)에 관한 평가도 분분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역사의식의 존재/부재'라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1930년대 단편소설 2편을 살펴보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되 새기고자 한다.

이태준 소설에서 현실을 인식해 나가는 주된 인물은 지식인이다. '고향'(1931)은 김윤건이란 동경 유학생이 동경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의 체험과, 조선으로 돌아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김윤건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가장 큰 가닥은 '고향 상실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생활사(복잡한 이주과정을 가진 생애)에서 기인한다. 그 이주과정들이 사실상 김윤건의 개인사적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향에서 온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좀 더 나은 곳을 끊임없이 찾아 다녔던, 식민지 조선인의 유랑적 삶의 보편적인 경우로 확장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고향상실감'을 형성한 것은 조국상실이다. 그러므로 돌아가야만 하는 조선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과, 고향으로써의 조선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그가 처한 현실의 출발점이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930년대의 역사적 상황은 개인의 의지와 희망을 무력화 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주인공의 의식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고향 인식, 즉 조국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갓한 울분을 보여준다. 비록 그것이 웅변조의 감상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귀국 후에 그의 앞에 드러난 조선의 현실은 이미 조선적인 가치는 없고 오직 일본을 위해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고향'으로서의 조선의 인식이 철저하게 거부당하는 현실을 확인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지점에서 김윤건은 현실에 대한 비타협성을 고수하고, 결국 '나도 이땅에 났으면 이 땅 사람이 당하는 괄세를 닫게 받자.'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의식은 요리집에서 졸업생 사은회를 위해 차려진 상을 뒤집어 엎고, '그날 저녁부터 관청의 신세를 지는 꼴'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결말처리는 1930년대 초반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성도 존재하지만, 주인공이 지닌 의식의 관념성과 더 나아가 작가의 현실인식에서 기인한다. 현실비판의 가늠자가 작가가 설정한 '이상 세계'에 근거하고 있는 까닭에 그 이상세계와 불합리한 '조선'이라는 현실세계의 거리감이 감지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분노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가가 설정한 이상세계가 애를 느낀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사라진 가치(전통적인 가치:예-여인네의 머릿수건, 기생의 소리가락)에 대한 이태준의 집착이 드러나 있다. 이는 결국 과거에 존재한 것들의 가치는 고전적인 전통 속에서 발견되며, 그것이 현실의 부정성을 인식해 나감에 따라 이상적인 가치로 설정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준다. 물론 그 속에는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나오는 허무감이 배어 있어 작가의 절망적 현실인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경사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 근대화의 대타적인 자리에 놓여진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작가에 의해 설정된 이상적인 가치(고전적인 전통)와 현실적인 가치(식민지적 질서)의 대립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패강냉」에서는 두 대립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는 기생 영월이로서 조선적인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다. 애틋함의 옛 자취를 지닌 영월이와의 만남은 현에게는 십여년만에 그리워하다가 찾은 폐허가 되기 전 조선의 유월한 모습이며, 황폐화된 현실에서 그에게 희망으로 남아있는 가치이다. 그러나 영월이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딴스'(댄스-서양 춤)도 추고 손님 비위도 맞추면서 돈을 벌어 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실생활에서는 현실의 힘을 이용하여 현실적응을 모색하는 적극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영월이의 적극성은 방식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만 그 이념적인 면에서는 전혀 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지니지 못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이태준 단편 소설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작가의식을 살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이태준의 작품에서 객관 현실에 대한 인식은 체험적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인공의 감정적인 분노와 자각을 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부정적인 가치에 대비시켜 놓은 지켜야 할 긍정적인 가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기인한다. 그 특징은 현실의 부정성에 비해 상대적인 긍정을 인정받지만, 현실이 배제된 세계의 가치이므로 현실적인 힘을 애초부터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태준은 고전의 의미를 생산성, 변식성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완결성의 세계에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인 절시요, 비인 병(瓶)이다. 담긴 것은 떡이나 물이 아니라 적적과 허무다. 그것은 아미 그옛이라기보다 한 천지요, 우주다. 남보기에는 한낱 파기편명(破器片皿)에 불과하나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무궁한 산하요, 장엄한 가람(伽藍)일 수 있다.…(중략)…

청년층 지식인들이 도자(陶磁)를 수집하는 것은 고서적을 수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완상이나 소장욕에 그치지 않고 미술품으로, 공예품으로도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발견해서 고물(古物) 그것이 주검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미와 생명의 불씨조가 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정말 고완의 생활화가 있는 줄 안다' -「고완품과 생활」((문장) 19호, 1940년 10월 부분인용)-

이 글은 이태준의 골동취미와 관조적 동양의 미덕을 드러낸 자신의 수필이다. 여기에 예로 제시되는 것은 떡이나 물이 담긴 그릇이나 점시가 아니라 그런 생활적인 것이 깡그리 제거된 자리, 즉 한 순간에 정지된, 완결된, 폐쇄된 것일 뿐, 수정이나 보완이나 손을 댈 수 없는 세계이다. 이곳이 바로 이태준이 이상으로 설정한 가치가 존재하는 곳이며, 그는 이 고전의 세계의 생명력은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부여함으로써만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전개의 결과가 아니라 심정적인 자각이다. 실상 이태준은 고전에 대한 지향성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대처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에 해석을 부여하는 행위는 과거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생양식을 찾아내는 적극성이 전제된 후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적극성을 배제하였을 때 현재가 새로운 생산양식을 가진 전 시대와는 다른 시대임을 부정하는 반 역사주의의 흐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일반적인 논리와는 또다른 위치에 이태준의 작품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완결된 고전에 대한 지향성이 식민지 체제를 승인하지 않는 방법의 전면성으로서 정신적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근대의 독립체인 구조에 희생당한 조선인의 잊혀진 얼굴이라는 점에서 이태준의 완결된 세계로의 지향은 바로 민족적 삶의 근거를 찾으려 한 정신적 방법론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준의 작가의식 또한 현실의 부정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대응은 현실내에서의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의 부정성에 대타적으로 설정된 이상세계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완결성을 지닌 고전적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각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 있으며, 아울러 그 두 측면이 실상 역사인식의 방향성에 대한 안목을 요청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응전력으로 승화되고, 전통적 것에의 관심이 민족적 열정으로 빛나던 시대의 문맥에서는 고전에의 경사가 단순한 소재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 숙
〈대학원 국문과·석사 4기〉

◇…이태준작 가마귀(96면)

완결된 고전지향으로 식민체제 저항
과거 민족의 삶 집착, 현실변혁 힘부재

◇서평…전환기에 선 진보운동의 진로

현대화, 혁신 그리고 연대를 위하여
새로운 대안과 전망 생산돼야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는 이전의 이데올로기 위주의 국제 질서에서 세계 경제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을 파생시켰다. 이러한 세계적인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 성장과 산업구조 조정의 진척이라는 경제적 토대 변화, 그리고 6공이후 드러난 정치 지형의 변화와 지배 방식의 고도화, 또한 이와 연관되어 시민 사회의 성장과 분화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는 이전의 제한된 물질적 조건과 절대적으로 권위를 상실한 정치권력의 조건하에서 누릴 수 있었던 변혁 운동의 도덕성과 현실적 적합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구조적 위기는 그간 변혁 운동의 지침으로 설정되고 실천되었던 이념, 이론과 전략 노선의 넉후성의 위기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객관적 변화에 조응하고 대중의 자주적 고양과 다양한 대중 운동의 성장 분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변혁 운동의 질적 쇄신이 요구될을 주장하는 저자는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변혁 운동의 위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먼저 이 책에서는 변혁운동의 질적 쇄신을 위하여 90년대 한국 변혁운동은 '제3세대 진보운동' 으로의 자기 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세계사적 격변기에 대한 전환기적 시대 인식에 기초하여 이념과 대안, 운동 전략들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전환기의 시대 인식, 체제적 대안, 이념, 이론, 전략 모델에 대한 검토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에 기반하여 제3세대 운동의 기본 방침과 기획을 대항 헤게모니의 구축과 담화적 실천의 강화, 새로운 대립전선과 저항 연합의 형성, 전략 노선의 혁신과 새로운 실천 방식의 확립, 그리고 이 책의 결론 부분이라 할수 있는 현실적 대중 정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 노선의 혁신적 재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화 및 혁신과 연대 프로젝트'로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현대화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빚어지고 있는 그간의 편향들을 경고하고 있다. 포스트주의자들의 맑시즘에 대한 원리 해체적이고 패기론적인 경향과 사민주의 및 신사회 운동 등의 개량주의적이고 대중 추수적인 경향들이 제 전환기에 선 진보운동 진영은 새로운 대안과 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책의 내용이 다소 방만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변혁운동의 위기임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 진보 운동진영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의 대상 이라는데서 긍정적이다.

대중에 의해 검증받지 못하고 아직 변혁운동 진영내에서도 논의의 여지로 남아 있는 '진보적 대중 정당론'등은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논의들에 하나의 집중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김 종 현
〈점경대 신방·4〉

歲時錄 여우에게 당당해질 그날을 위해

진심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 속사정이야 어쨌든 이인모씨의 송환결정은 통일을 위한 큰걸음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찌보면 아니,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에 지금까지 통일을 손익계산서상의 주판알로 튕기던 무심한 구정권들에 대한 원망이 앞선다.

옥중생활 34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사상의 자유를 누리기위해 그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또하나의 지고한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왔다. 지금 그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송환의 그날을 고대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고난의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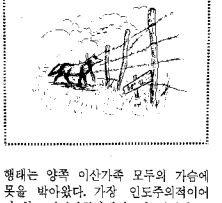
그 옛날 지리산 자락에 누워있던 어린 전우의 모습을.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들판과 하늘을.

그토록 열망하던 통일된 조국을.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인생의 반을 적지(?)의 한평 남짓한 감옥에서 그려보곤 했던 것들이었으리라.

비 전향 사상범으로서 수십년간 자행돼온 악명높은 사상전향공작에 맞서 한치의 양보와 타협없이 자신이 신뢰하는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황금 같은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백발이 되어버린 '통일의 그날'까지 죽을 권리'조차 없는 이인모씨가 갖는 분단의 아픔은 그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일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이리라. 분단의 벽에 가려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에 양 정권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태는 양쪽 이산가족 모두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다. 가장 인도주의적이어야 할 적십자회담에서조차 정치적 조건들에 의해 결렬로 치닫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통일에의 의지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여우조차 자신이 태어난 언덕을 향하여 죽음을 맞는다한다. 더우기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망향의 감정은 그 어떤 강권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민족은 40여년이 넘은 지금까지 망향의 한가지 해소책일 수 있는 이산가족 상호 고향방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여우의 죽음'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한다.

가로 막힌 철책선에서 얼마나 많은 실향민이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하며 '이몸이 새라면'을 되뇌었을까?

어머님 묘소 앞에서 그간의 불효를 사죄하겠다는 이인모씨 개인의 소망은 이제 일천만 이산가족들에게 한줄기 서광을 비춰주게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양측의 적극적이고 경허한 만남과 그 만남속에서 보다 진지한 통일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개인의 지나친 애국심(?)에 의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겠다.

'이땅이 뉘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가 실현되는, 새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여우게 당당해질 그날은 멀지 않았다.